

#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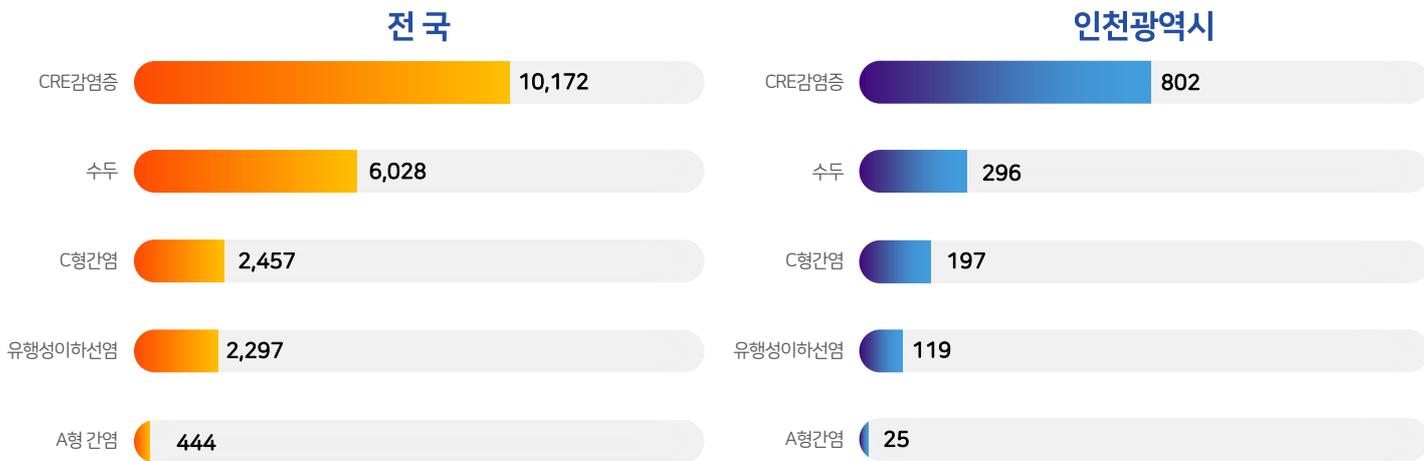


발행일 2023. 4. 26.(수) 통권 제189호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전화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코로나19 현황
- 05 주간 Special  
「말라리아-연세대학교 염준섭 교수님」
- 06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7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4월 주요활동
- 08 홍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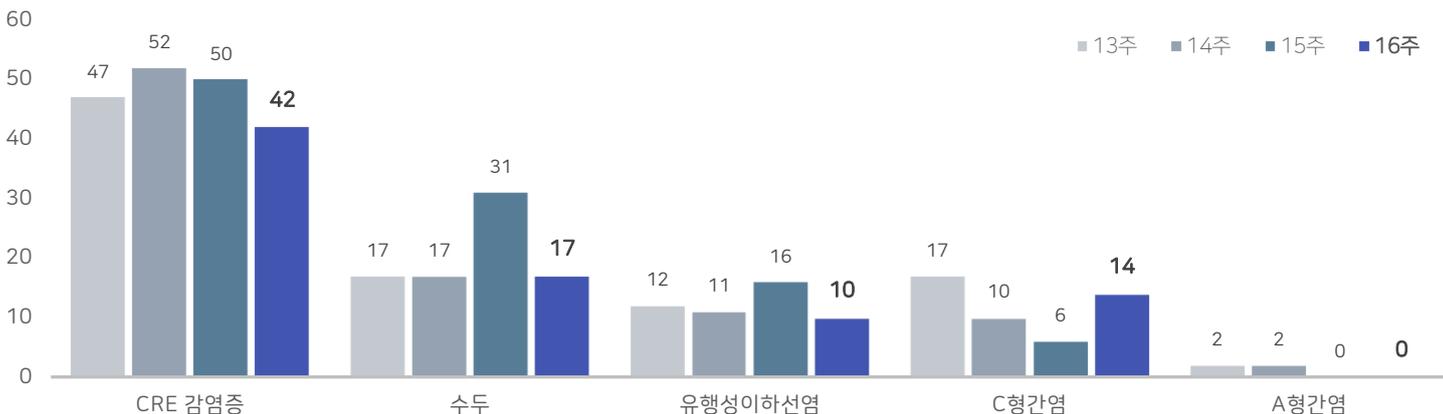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10,172건, 수두 6,028건, C형 간염 2,457건, 유행성이하선염 2,297건, A형 간염 444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 감염병은 CRE 감염증 802건, 수두 296건, C형 간염 197건, 유행성이하선염 119건, A형 간염 25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023.4.26.(수)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3년 누적기간(1.1.~4.22.)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인천) 16주차 감염병은 83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13-15주) 평균(96.7건) 대비 13.7건 감소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현황(3페이지)을 참조

##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3				동기간대비 (1-16주)				동기간대비 (1-16주)			
	16주	15주	14주	13주	2023	2022	증감	5년 평균	2023	2022	증감	5년 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1		▲ 1	0
수두	17	31	17	17	296	239	▲ 57	580	6,028	4,479	▲ 1,549	11,458
홍역								2	2		▲ 2	31
콜레라									1		▲ 1	0
장티푸스								2	9	12	▼ 3	23
파라티푸스					1	2	▼ 1	1	10	4	▲ 6	9
세균성이질						2	▼ 2	1	19	9	▲ 10	1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 2	1	32	14	▲ 18	17
A형간염			2	2	25	60	▼ 35	106	444	828	▼ 384	1,447
백일해								3	13	8	▲ 5	58
2급												
유행성이하선염	10	16	11	12	119	93	▲ 26	144	2,297	1,803	▲ 494	2,794
풍진								0				1
수막구균 감염증									2	1	▲ 1	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 1	1
페렴구균 감염증		2		1	15	15	- 0	12	139	118	▲ 21	140
한센병												1
성홍열	2	2	1		8	6	▲ 2	48	154	117	▲ 37	896
VRSA 감염증										1	▼ 1	0
CRE 감염증	42	50	52	47	802	677	▲ 125	525	10,172	7,336	▲ 2,836	6,414
E형간염					1	2	▼ 1	1	154	132	▲ 22	101
3급												
파상풍					1		▲ 1	0	4	5	▼ 1	6
B형간염			1		6	6	- 0	6	99	94	▲ 5	109
일본뇌염											▲ 1	0
C형간염	14	6	10	17	197	211	▼ 14	235	2,457	2,582	▼ 125	3,024
말라리아					3		▲ 3	2	39	10	▲ 29	21
레지오넬라증				1	4	3	▲ 1	5	136	76	▲ 60	106
비브리오패혈증										1	▼ 1	0
발진열						2	▼ 2	1	2	2	- 0	1
쯔쯔가무시증	1				3	4	▼ 1	3	282	239	▲ 43	210
렙토스피라증								0	7	15	▼ 8	13
브루셀라증									1	2	▼ 1	2
신증후군출혈열					2	1	▲ 1	1	49	34	▲ 15	49
CJD/vCJD								1	11	18	▼ 7	18
뎅기열					3		▲ 3	2	44	1	▲ 43	27
큐열								0	9	13	▼ 4	18
라임병								1	1		▲ 1	3
유비저									1		▲ 1	1
치쿤구니야열									7	1	▲ 6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									1	1	- 0	1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1		▲ 1	1

- 16주차(2023. 4. 16. - 2023. 4.22.)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3. 4. 26.(수) 질병관리청 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2-2023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19-2023)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간(2019-2023) 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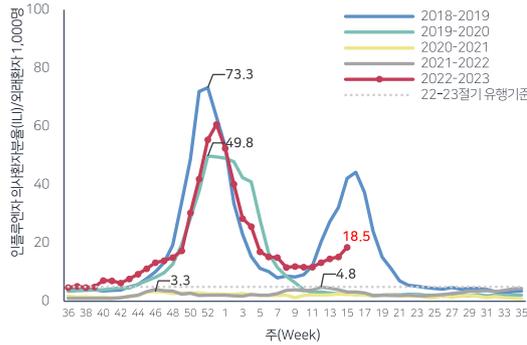
###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현황(2022-2023절기)

- (전국) 1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5명으로 전주(15.2명) 대비 증가
- (인천) 1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8.1명으로 전주(24.1명) 대비 증가
- ※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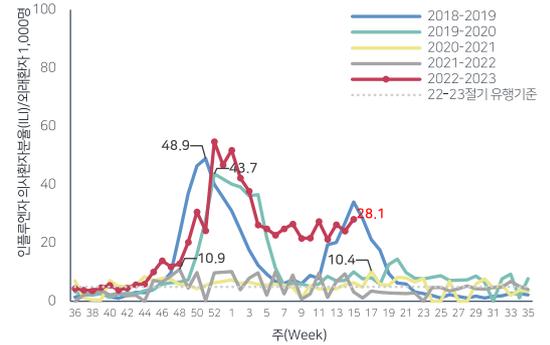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3년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전국	11.6	11.9	11.7	11.7	13.2	14.5	15.2	18.5
인천	26.5	21.5	21.7	27.4	21.2	26.3	24.1	28.1

####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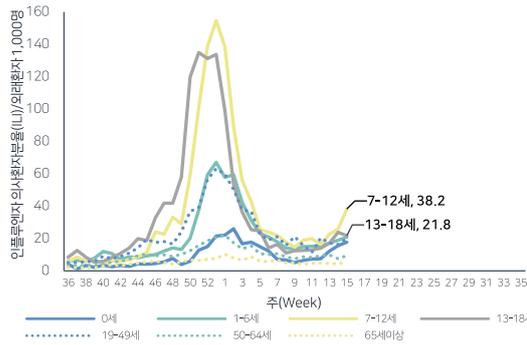


####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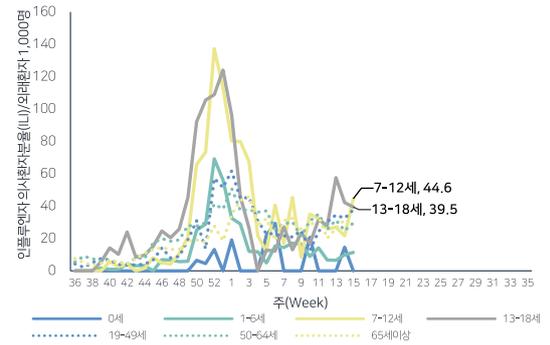


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천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 총 진료환자 수) x 1,000

#### 2022-2023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 2022-2023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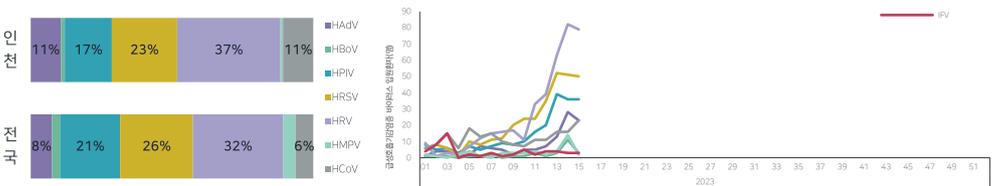


##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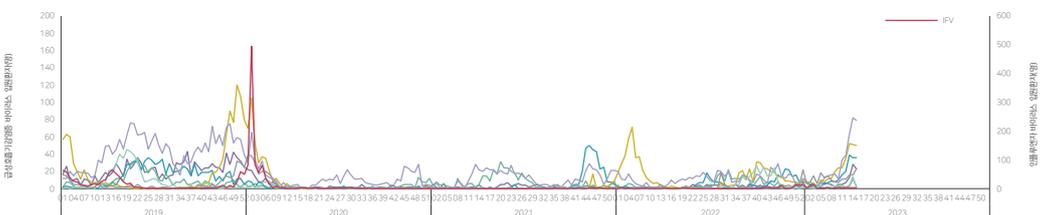
- 15주차(2023.4.9.~2023.4.15.) 표본감시 현황은 2023.4.24.(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감염병웹보고 및 2023년도 15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6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전국 220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 인천광역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11개
- \* 인천광역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13개

- (인천) 15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16명으로 전주(238명) 대비 감소
- (인천) 15주차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3명으로 전주(3명) 대비 동일

#### 2023년 15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현황



#### 최근 5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현황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주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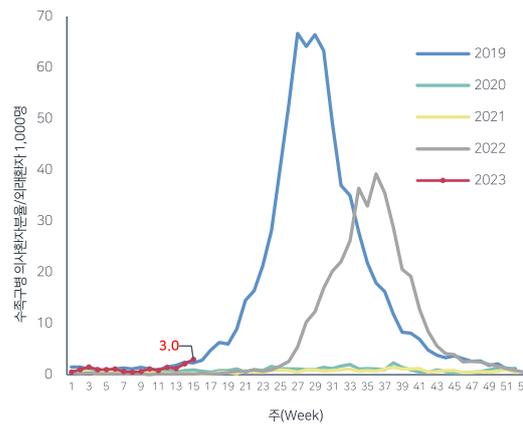
- (전국) 15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0명으로 전주(2.1명) 대비 증가
- (인천) 15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0.9명으로 전주(0.5명) 대비 증가

단위: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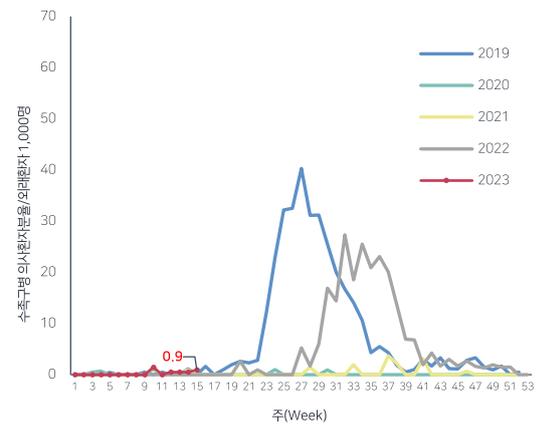
구분		2023년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전국	전체	0.5	0.6	1.1	0.8	1.4	1.2	2.1	3.0
	0-6세	0.7	0.7	1.5	1.0	1.9	1.6	2.6	4.2
	7-18세	0.1	0.2	0.1	0.1	0.2	0.3	0.8	0.5
인천	전체	0.0	0.0	1.4	0.0	0.5	0.5	0.5	0.9
	0-6세	0.0	0.0	2.0	0.0	0.0	0.8	0.7	1.4
	7-18세	0.0	0.0	0.0	0.0	1.3	0.0	0.0	0.0

1)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 / 총 진료환자 수) x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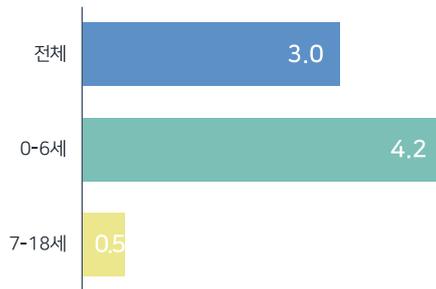
2019-2023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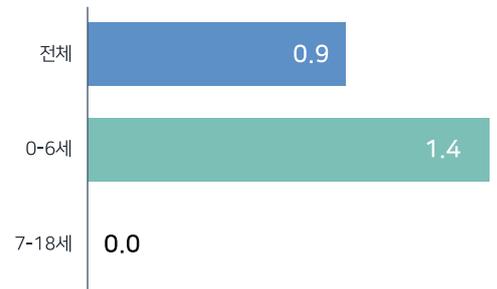
2019-2023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인천)



2023년 15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2023년 15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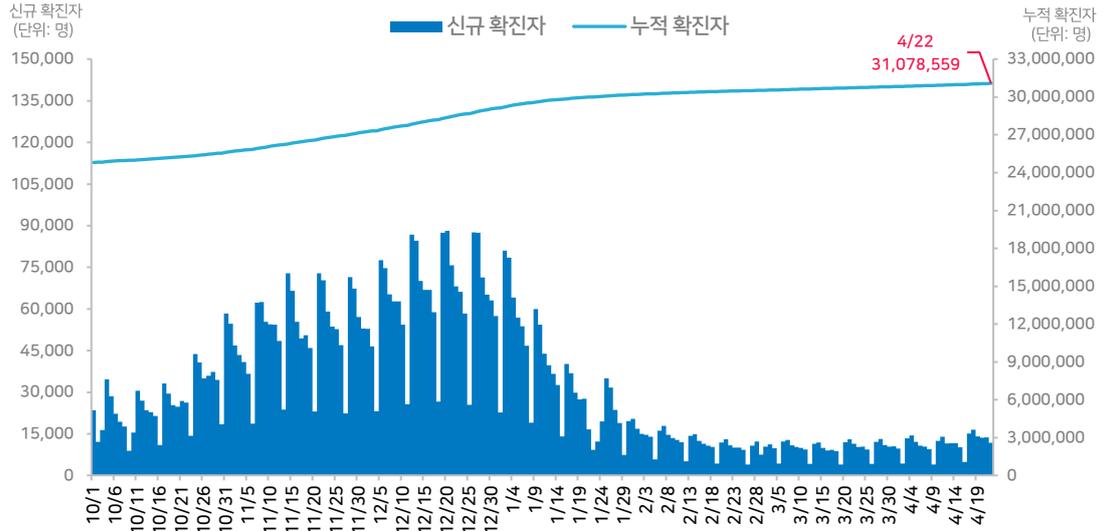


- 15주차(2023.4.9.~2023.4.15.) 표본감시 현황은 2023.4.24.(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감염병웹보고 및 2023년도 15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09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 인천광역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6개

# 04

## 코로나19 현황 (국내)

###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주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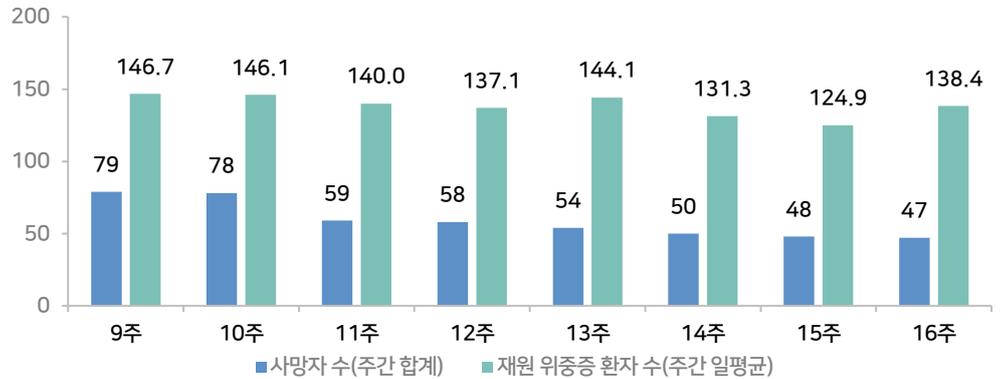
2023. 4. 23. 0시 기준 (단위: 명)

구분	사망	재원 위중증	신규 입원	확진
최근 7일간 일평균 (4.16.~4.22.)	6.7	138.4	29.4	12,844.9
(누적)사망 34,419명			(누적)확진 31,078,5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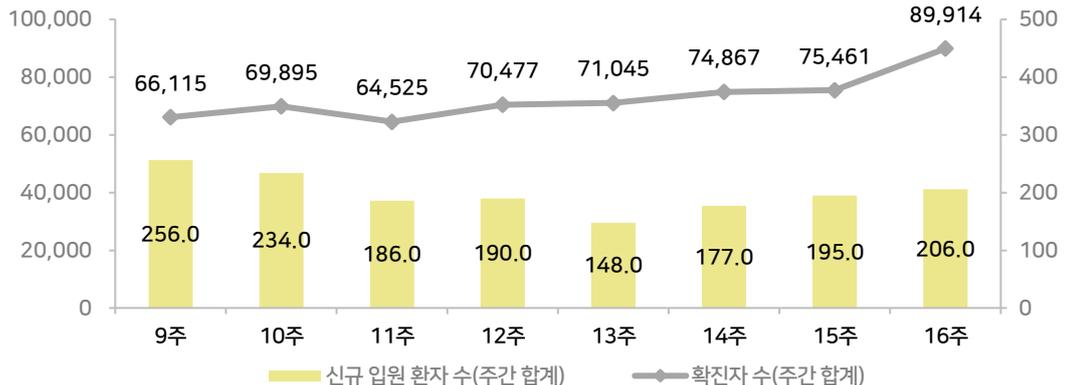
※ 잠정 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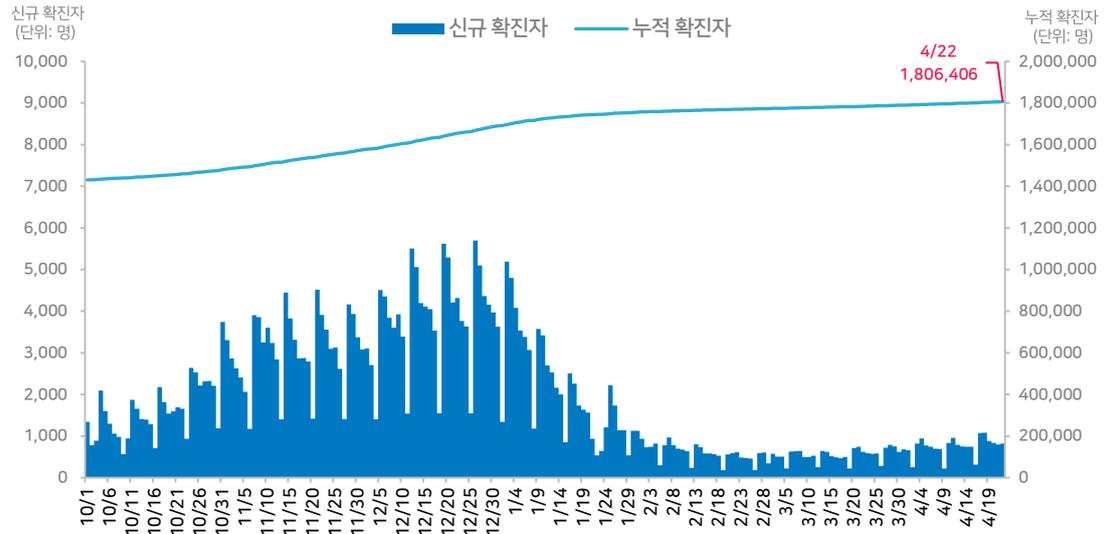
#### ▶ 사망 및 재원 위중증



#### ▶ 신규 입원 및 확진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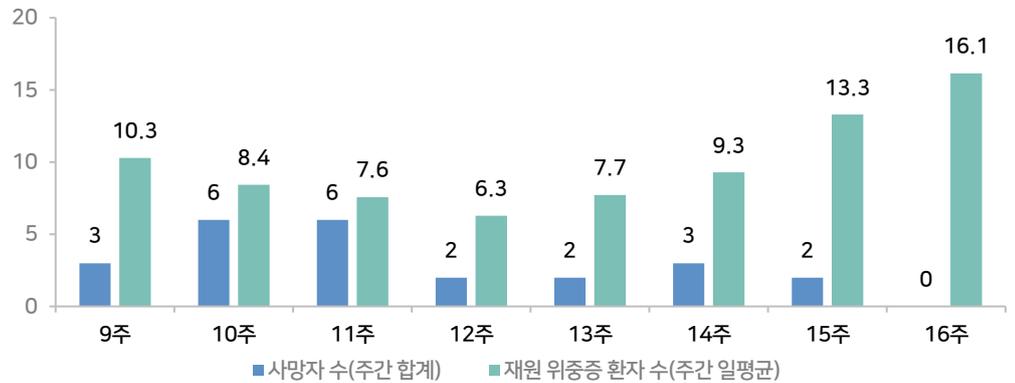
주간 발생 현황

2023. 4. 23. 0시 기준 (단위: 명)

구분	사망	재원 위중증	확진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Rt)
최근 7일간 일평균 (4.16.~4.22.)	0.0	16.1	830.3	1.08
(누적)사망 1,898명		(누적)확진 1,806,406명		

사망 및 재원 위중증

(단위: 명)



확진 및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Rt)



# 코로나19 현황 (인천광역시)

## 주간 위험도 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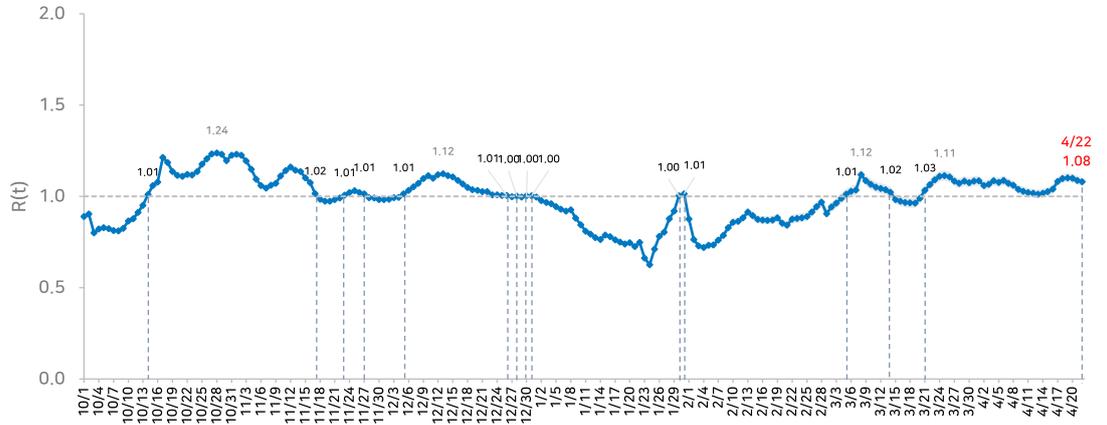
### ✓ 최근 1달간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최근 1주간(4.16.~4.22.) 일평균 확진자 수는 830.3명으로 직전 1주(721.1명)보다 109.1명(15.1%) 증가하였음
- 해외유입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명으로 직전 1주(2.1명)보다 0.9명(40.0%) 증가
- 60세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는 219.3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26.4%임
- 18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7.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13.0%임

구분		13주 (3.26.~4.1.)	14주 (4.2.~4.8.)	15주 (4.9.~4.15.)	16주 (4.16.~4.22.)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명)	국내발생	644.6	702.7	719.0	827.3
	해외유입	1.6	2.3	2.1	3.0
	전체	646.1	705.0	721.1	830.3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명)		991	1,181	1,400	1,535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21.9	23.9	27.7	26.4
주간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789	761	651	753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7.4	15.4	12.9	13.0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Rt)		1.08	1.07	1.02	1.08

### ✓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Rt)

- 2020.1.20.~2023.4.22. 인천광역시 일별 확진자(확진일)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값임



1)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Time-varying reproductive number, Rt): 특정 시점에서 인구집단의 평균 감염력

R < 1: 감염병의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짐,  
R = 1: 지역사회에 일정 수의 감염자가 유지됨,  
R > 1: 감염병의 유행이 일어남

2) Cori 방법 이용, 각 점은 1일을 의미함

## 병상 현황

2023. 4. 23. 18시 기준(단위: 병상, %)

구분	확보병상	사용병상	가용병상
중증환자 지정 병상	26	15	57.7
준중환자 지정 병상	31	14	45.2

※ 중수본 방침에 따라 일반환자 지정 병상은 3.8일자로 지정 해제(미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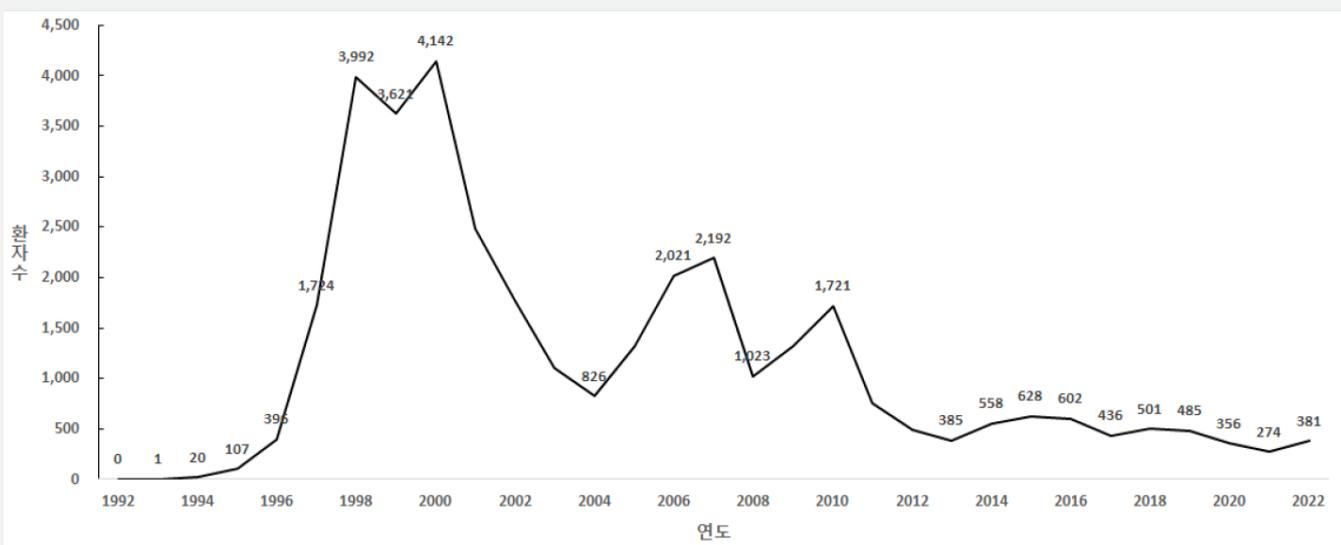
# 국내 말라리아의 특성 및 현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염준섭 교수님

## 1. 현황

▶ 1993년 파주지역 DMZ에 복무 중이던 군인 1명에서 삼일열말라리아가 재발생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0년에는 4,142명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퇴치사업으로 감소하기 시작, 이후로는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381명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1). 말라리아 유행 초기에는 주로 군인에게서 발생하였으나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클로로퀸 예방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현재는 민간에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매년 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정 발표하는데 주로 인천시 강화군, 서구, 연수구,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고양시 일산서구, 강원도 철원군 등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3년에는 과거에는 없던 '잠재적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서울시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 등 11개 구와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말라리아 환자는 4월 말~5월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 9월에 최고조에 이른 후 감소하여 겨울철에는 거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는 7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우점종이 다르고, 이들의 흡혈 호기성과 서식 지역 등이 조금씩 다르고 봄-여름철 출현 시기도 차이를 보인다.



<그림1.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1992-2022)>

## 2. 특성

▶ 온대지역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의 특징인 단기잠복기(평균 12~18일)와 장기잠복기(6개월~12개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체 발생 환자에서 단기잠복기와 장기잠복기를 갖는 환자의 비율은 연구에 따라 다르나 현재는 여러 전문가가 5: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년 감염되는 환자의 상당수가 이듬해에 발병하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이력을 1년 전까지 자세히 물어보아야 한다. 진단을 위해 신속진단키트가 보험 급여가 인정되므로 여름철 발열 환자를 진료할 때 조기 진단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기본 치료제인 chloroquine에 내성은 없어 환자의 혈액에 있는 삼일열원충의 제거를 위해 hydroxychloroquine을 사용하고, 환자의 간에 숨어있는 휴면체(hypnozoite)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primaquine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hydroxychloroquine과 primaquine은 환자의 체중과 상관없이 정해진 용량의 처방을 권고하는 지침도 있었으나 현재는 두 약물 모두 환자의 체중을 고려하여 용량을 결정, 투여할 것을 WHO에서 권고하고 있다. Chloroquine base를 기준으로 환자 체중당 총 25mg을 투여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10mg/kg를 투여하고, 24시간 간격으로 10mg/kg, 5mg/kg을 투여한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hydroxychloroquine 200mg은 chloroquine base 155mg 와 대등하다는 점이다. 즉, hydroxychloroquine 기준으로 총 25mg/kg을 투여하면 권고되는 총투여량보다 적게 투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Primaquine은 체중당 0.25mg - 0.5mg을 14일간 사용해야 한다.

### < 말라리아 ( Malaria ) 질병 개요 >

**(정의)** 제3급 법정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만 발생함.

\* 삼일열·열대열·사일열·난형열·원숭이열 말라리아

**(감염경로)**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속(Anopheles)에 속하는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며,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중국 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 및 유충(우)

**(잠복기)** 일반적으로 7~30일이지만 면역 상태, 원충 종류 등 여러 영향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삼일열원충은 간에 잠복하여 모기에 물린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재발할 수 있음.

**(임상 증상)** 초기 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림, 삼일열 말라리아는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해열 등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4.25.)

#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1. [국내]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봄철 호흡기감염병 환자 증가세](#)
- [영유아,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대상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개인 위생 관리 당부](#)

-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음(4.21.).
- '23년 15주(4.9.~4.15.)의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201명으로 '23년 2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리노바이러스(701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567명),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47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함.

<급성호흡기감염증 바이러스별 입원환자 수>

(단위: 명)

구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데노 바이러스	보카 바이러스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계
	HAdV	HBoV	HPIV	HRSV	HRV	HMPV	HCoV	
12주	95	37	262	422	479	60	159	1,514
13주	131	45	385	437	571	86	155	1,810
14주	176	87	476	526	689	94	143	2,191
<b>15주</b>	<b>166</b>	<b>62</b>	<b>470</b>	<b>567</b>	<b>701</b>	<b>98</b>	<b>137</b>	<b>2,201</b>
2023년 누계*	1,117	501	3,132	3,613	4,137	688	2,427	15,615
2022년 15주†	14	4	5	27	65	0	8	123

\*2023년 누계: '23년 1주~15주(1.1.~4.15.)

†2022년 15주: '22.4.3.~4.9.

※ 본 정보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 감시 자료를 신고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연령별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ILI\*)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3월 개학 시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38.0°C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함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

(단위: 명/(외래환자 1,000명 당))

구분	전체	0세	1-6세	7-12세	13-18세	19-49세	50-64세	65세 이상
12주	13.2	7.6	15.4	16.4	14.0	20.4	9.4	4.7
13주	14.5	12.3	17.1	22.6	17.2	17.2	9.8	4.6
14주	15.2	15.6	19.0	25.8	23.9	16.4	7.6	4.3
<b>15주</b>	<b>18.5</b>	<b>17.7</b>	<b>21.0</b>	<b>38.2</b>	<b>21.8</b>	<b>20.0</b>	<b>9.4</b>	<b>5.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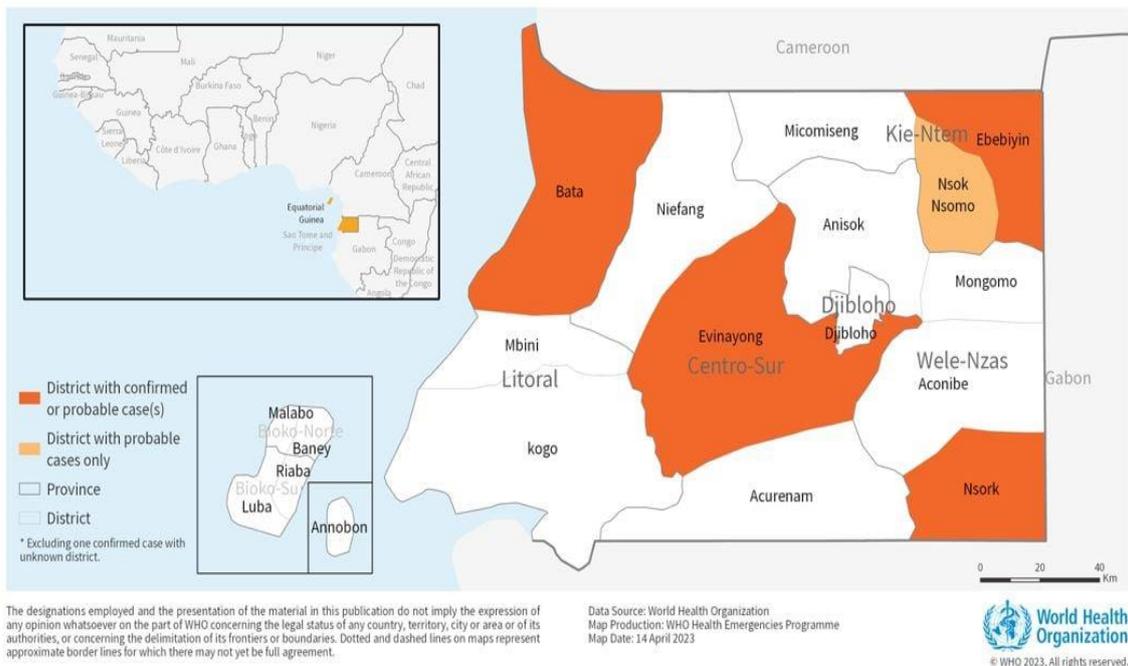
-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준수”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함.

※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3.4.21.)

## 2. [마버그열/적도기니] 마버그열 사례 지속 발생 및 보고지역 확대

### (발생현황) 발생보고 지속, 보고지역 확대로 적도기니 내 확산 가능성 증가

- 마버그열 첫 확진 사례 발생 보고(2.13.) 이후 적도기니 내 지속 발생 상황 중이며, '23.3.22.~'23.4.11.까지 바타(Bata) 및 웰레은자스(Wele-Nzas) 지방에서 마버그열 확진 사례 7명\* 추가 발생 보고함.
- '23년 누적 발생 39명(확진 16, 의심 23), 사망 11명(확진 11)('23.4.18.)
- \* 신규 사례 지역별 분포: Bata(5명), Wele-Nzas(1명), 조사중(1명)
- 확진사례 16명은 사망(11명), 회복(3명), 조사중(2명)으로 확인됨.
- Bata지방 사례(5명)는 가족 클러스터(3명)와 의료기관 접촉자(2명)이며, Wele-Nzas지방은 새롭게 확진 사례(1명)를 보고하였으며 앞선 사례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됨.
- 가장 많은 사례가 보고된 Bata지방은 항구와 국제공항이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신규 발생 지역인 Wele-Nzas 지방은 가봉과 국경 인접 지역으로 아프리카 내 확산 증가 예상됨.



### < 적도기니 마버그열 발생 보고 지역('23.4.11. 기준) >

※ (자료 출처) : WHO(4.19), 질병관리청

### 3.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스페인] 계피 가루 통한 식중독 30명 발생

(발생현황) 스페인 마드리드, 특정 계피 가루 섭취 후 구토, 복통 호소

-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특정 제품의 계피가루 섭취 후 식중독 증상으로 30명 이상 발생이 보고됨.
-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에서 베트남 산 계피가루 섭취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구토를 동반한 설사 등의 증상이 보고됨.
- 스페인 식품 안전 및 영양청(AESAN)은 Especies Pedroza 브랜드의 베트남 산 계피 가루에서 Clostridium perfringens 균의 성분을 확인하였으며, 이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였음.
- 또한 관련 제품의 철수를 확인하고, 가정에서 제품 확인 후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고, 베트남 산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 등 추가 실시 중임.
- Clostridium perfringens 균은 열, 건조 및 기타 환경 조건에서 생존에 필요한 포자를 생성하며, 식품을 안전하지 않은 온도로 보관하거나, 특정조건에서 활성 박테리아로 변질될 수 있음. CDC에 따르면 Clostridium perfringens가 포함된 음식 섭취 후 질병을 유발하는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함.
- 부적절하게 조리된 음식, 천천히 냉각되거나, 뜨거운 온도로 유지되지 않는 것과 관련 있음,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섭취 후 6~24시간 후 감염 증상을 경험함.
- 일반적인 증상으로 복통과 위경련을 일으키고 설사를 유발하며, 메스꺼움을 호소하기도 하나 24시간 이내 호전되며, 치명적이지는 않음.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질병 개요>

**(정의)**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증식하여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감염경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을 통해 전파

**(치명률)** 갑작스런 복통·설사·메스꺼움이 있으며 대체로 1일 이내 소멸, 발열과 구토는 흔하지 않고, 일부 환자에서 보임, 대부분 회복하며 사망은 드물게 나타남

**(예방/치료)** 대증치료,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증상이 심할 경우 항생제 치료 시행

※ (자료 출처): ProMed(4.17.), 질병관리청

#### 4. [연쇄상구균 감염/미국] 뉴욕주에서 침습성 연쇄상구균 환자 급증

##### (발생현황) 뉴욕주에서 침습성 그룹 A 연쇄상구균 감염 환자 450건 이상 발생

- 2023년 뉴욕주 전역에서 침습성 그룹 A 연쇄상구균(invasive group A strep, 이하 iGAS) 발생 사례가 450건 이상 보고됨(뉴욕주 보건부).
-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뉴욕주에서 보고된 발생 사례의 2배 이상의 수치이며, 주로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보고되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저연령에서의 증가가 관찰됨.
- 빅토리아 주 국경 지역 등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음.
- 최근 임상 보고에 따르면, 연쇄상구균(침습성, 비침습성)에 감염된 소아는 폐렴, 축농증, 골수염 및 패혈성 관절염에 따른 급성 저산소성 호흡 부전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다른 바이러스 감염(파라인플루엔자, 라이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이 연쇄상구균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킴.
- A형 연쇄상구균은 독감 유사 증상(고열, 신체통증), 인후염, 편도선염, 성홍열(목 통증, 고열, 전신 발진 동반), 농가진(딱지와 궤양), 연조직염(통증과 부기), 심한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드물게 iGAS에 감염시 괴사성 근막염(살 파먹는 박테리아),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STS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함.
- 건강한 사람도 iGAS에 감염될 수 있지만 암, 당뇨병, 신장투석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성 약물 사용 환자가 감염 가능성과 위험성이 더 높음.
- 뉴욕보건부는 기침 및 재채기 후나 음식 준비 전후 및 식사 전에 손 위생을 강조하였고 상처 부위의 발적이나 통증 증가, 열 등의 징후가 나타나면 병원 방문할 것을 촉구함.

※ (자료 출처): 뉴욕주 보건부, CDC, Outbreaknewstoday(4.12), ProMed(4.15), 질병관리청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4월 주요활동



### 18 교육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참여

일시 : 23.4.18. 15:00~17:00  
 장소 : 인천중앙도서관 문화누리터  
 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참여  
 대상 :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염병 관리위원회



### 19 FETP-F 팀장 교육 실시

일시 : 23.4.19.~23.4.20.  
 장소 : 베스트 웨스턴 하버파크 호텔  
 내용 :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교육(FETP-F) 팀장교육 실시  
 대상 :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담당 팀장(6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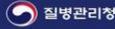
### 26 노인요양시설 관리자교육 실시

일시 : 23.4.26. 15:00~17:00  
 장소 : 인천시청 회의실  
 내용 : 인천광역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감염예방관리 교육 시행  
 대상 : 인천 소재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 27 FETP-F 예비방역인력 교육 실시

일시 : 23.4.27.~23.4.28.  
 장소 : 송도 컨벤시아 회의실  
 내용 :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비방역인력 양성  
 대상 : 지자체 역학조사반원(예비 역학조사반원 포함)

2023.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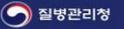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알아보기



1/6

2023. 4. 21.



## Q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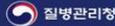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호흡기감염 바이러스로 원인병원체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입니다.  
\*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1세 미만 영아에게 나타나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6

2023.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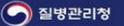
## Q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무엇인가요?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경우 일반적으로 감염 후 4~6일 이내 증상이 나타납니다.
- 성인은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이 나타나지만,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 증상 없이 보챔, 처짐, 수유량감소, 빠르고 쌉쌉거리는 숨소리(천명음), 무호흡(10초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는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6

2023.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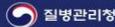
## Q3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감염된 사람의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접촉한 후 눈, 코, 입 주위등을 만졌을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요양기관 등에서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4/6

2023. 4. 21.



## Q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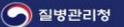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해열제 투약, 수액 치료 등 대증요법으로 치료합니다.
- 단,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5/6

2023. 4. 21.



## Q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장난감, 식기 등 많이 만지는 물건 자주 소독하기



기침할때 입과 코 가리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6/6

2023. 4. 25. 질병관리청

## 알고 계세요? 매년 4월 25일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 입니다!

말라리아는, 전 세계에서 매년 무려 2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우리나라도, 매일 한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8

2023. 4. 25. 질병관리청

## 말라리아 예방수칙

### 지키고! 알고! 기억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 1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 2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3~4시간 간격) 뿌려주세요!
- 3 실내에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해 주세요!
- 4 집 주변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고인 물을 꼭 제거해 주세요!
- 5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등으로 방문하신 다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8/8

2023. 4. 25. 질병관리청

## 말라리아, 그것이 알고 싶다?

- ▶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모기 사름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 ▶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발생 국가로 매년 300명~400명의 환자가 주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연도	국내 발생	해외 유입
2017	79	436
2018	75	501
2019	74	485
2020	29	356
2021	20	274
2022	38	382

2/8

2023. 4. 25. 질병관리청

##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특성은?

- ▶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는 4월부터 10월 사이, 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까지 사람에게 접근해 피를 빨아들입니다.
- ▶ 매개모기는, 벽면과 45도 각도로 앉아있으며 비행 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 매개모기는 논과 수물, 습지 등 물이 고인 웅덩이에 주로 서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      중국 얼룩날개모기 유충

3/8

2023. 4. 25. 질병관리청

## 말라리아 주요 위험지역은 어디일까요?

- ▶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휴전선 인근지역인 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라리아 위험지역 구분

- 고위험 지역
- 중위험 지역
- 저위험 지역
- 잠재적 위험지역

4/8

2023. 4. 25. 질병관리청

##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은 무엇일까요?

- ▶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나타나고, 48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 매개모기에 물린 뒤 짧게는 7일, 길게는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8시간 간격으로 반복

오한, 발열, 발한, 두통, 설사, 구토

5/8

2023. 4. 25. 질병관리청

## 진료 및 검사방법, 알려주세요!

- ▶ 말라리아는 신속진단키트 등으로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트 검사      현미경 검사      PCR

6/8

2023. 4. 25. 질병관리청

## 말라리아 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 ▶ 말라리아는 치료제가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빠짐없이 약을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말라리아 원충은 혈액과 간에 존재하게 되며,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클로로퀸 3일      프리마퀸 14일

7/8